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 영향 요인과 대책

김지혜* · 안치민**

초 록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밝히고,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가출청소년 가운데 53.6%가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집단간 비교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학업중단 예측변수를 관찰한 결과, 청소년의 성별, 교사와의 관계유지, 가출기간이 학업중단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남자이거나 가출기간이 길수록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크고, 가출상태에서도 교사와 가까운 관계를 가질 때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적었다.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가출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출기간의 장기화를 막고, 가출 상태에서도 교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내의 전문가의 집중적 개입과 보호시설의 가출청소년 학업유지 및 정규학교 복학 지원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 가출청소년, 학업중단, 교육권, 학교사회복지

*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I. 머리말

청소년의 가출은 단순히 집과 가족을 떠나는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에서 중도 탈락하여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청소년 가출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특히 가족의 학대나 해체, 빈곤 등 청소년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Kurtz & Kurtz, 1991). 청소년이 일차적인 보호체계인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학업중단으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사회에서 교육과 발달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결국 개인적인 부적응, 낙오는 물론 지속적인 사회적인 비용과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획득, 사회적응 및 권리의 행사 등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학업중단은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이행하도록 하는데 큰 걸림돌로서 후속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학력의 중요성이 높고 교육의 결정력이 큰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교육은 그 자체가 사회경제적 지위의 한 차원인 동시에 직업지위 획득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으로서 전반적인 사회문화적인 삶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Bourdieu, 1986). 다른 한편으로 교육권은 ‘UN인권선언’ 사회권규약의 사회적 권리 내지는 복지권인 동시에(안치민, 2003), ‘UN아동협약’이 제시한 주요한 발달권으로서 청소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중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적어도 중학교까지, 더 바람직하게는 고등학교까지 모든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¹⁾

가출이 일시적이고 일회적이라면 청소년은 일시적으로 가족과 학교에서 떠난 뒤에 다시 학교에 돌아와 학업을 계속하게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가출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는 가정폭력과 가정해체로 인해 사실상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상태이고(서울시립심림청소년쉼터, 2003), 그에 따라 학업의 기회도 장기적으로 박탈되

1) 물론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즉 2004년 기준 GDP 세계 10위, 1인당 GDP 24위임을(OECD, 2006) 고려할 때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까지의 보장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된다²⁾. 최근의 조사결과(김경준 외, 발간예정)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출청소년 가운데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은 39.4%인 반면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는 청소년은 60.6%를 차지하여 1.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은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의 중도탈락과 진학률을 고려할 때 대단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³⁾

가출청소년 집단의 높은 학업중단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회에서는 가출청소년의 학업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가출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주로 청소년비행과 가족해체에 기울어져 있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도 범죄 및 우범행동 예방 내지는 가정복귀와 보호차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이다(김준호·박정선, 1993).⁴⁾ 또한 더욱 직접적으로는 청소년의 가출을 학업의 중단과 동일시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보인다. 즉 모든 가출청소년은 당연히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학업중단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제시한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 현황이 시사하는 중요한 점의 하나는 역설적으로 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청소년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이다.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지만, 40% 정도의 청소년들은 가출 이후에도 정규학교에서 학업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가출청소년은 학업중단의 고위험 집단이기도 하지만, 학업중단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개입해야 할 집단이기도 하다.

2)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5)에서 2005년도에 전국의 청소년쉼터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오래 가출했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청소년이 52.9%였고, 6개월 이상인 청소년은 전체의 23.3%이었다. 2006년도에 330명에 대해 실시한 한 조사(김경준 외, 발간예정)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의 가출은 장기화되어 지속적인 생활상태로 유지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업으로부터의 장기적인 이탈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3) 최근 통계청(2006)의 보고에 의하면, 2005년도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집단의 휴학, 중퇴, 제적생 비율이 중학교 0.7%, 일반계 고등학교 1.2%, 실업계 고등학교 3.4%였고, 진학률은 중학교의 경우 99.9%, 고등학교 99.7%이었다.

4) 지금까지 학교 내에서 가출의 발생은 청소년 개인의 일탈행동으로 인식되고 교정해야 할 문제로 다루어졌을 뿐, 이 청소년들을 학업중단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으로서 학교 적응을 위해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집단으로 인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가출청소년은 비행행동을 동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김준호·박정선, 1993; 원혜옥, 2001; 연성진·민수홍, 2004), 학교에서는 더 더욱 이러한 청소년들을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이들이 학교를 중퇴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밝히려 한다. 그럼으로써 청소년이 가출을 하더라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중퇴 또는 학업중단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유성경·이소래, 1998; 조아미, 2002; 박창남·도중수, 2003). 그러나 가출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들이 학교중퇴 또는 학업중단의 위험이 높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가 거의 시도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학업중단의 위험이 높은 집단인 가출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주요 요인을 밝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도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은 정규학교를 다니다가 가출을 하면서 장기결석 또는 중퇴를 하거나, 이전 과정의 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아 정규교육제도에 벗어 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가출청소년의 학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 구체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었다. 그러나 청소년쉼터에서 발간되는 운영보고서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가출상태에서 정규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

〈표 1〉은 서울특별시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2개의 기관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학교 재학과 학업 중단의 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가운데 학교에 재학상태에 있는 청소년은 38.1~53.8%인 것에 비해 중퇴 또는 미진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61.9~46.2%로 나타났다. 한편 김경준 외(발간예정)의 연구에서도 전체 청소년 330명 가운데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은 60.6%를 차지하고 있어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청소년쉼터 운영보고서에 나타난 학업중단 실태

출처	재학	학업중단	
		중퇴	미진학
신림청소년쉼터(2003)	91(39.9)	115(50.4)	22(9.7)
신림청소년쉼터(2004)	86(38.1)	112(49.6)	28(12.4)
신림청소년쉼터(2005)	141(50.2)	118(42.0)	22(7.8)
금천청소년쉼터(2005)	212(53.8)	180(45.7)	2(0.5)

가출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더라도 학습에 대한 욕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Rafferty와 Weitzman(2004)의 연구에서는, 노숙을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ogers와 Segal(1994)의 연구에서도 역시 가출청소년과 비가출청소년은 학교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김경준 외(발간예정)의 연구에서 정규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 가운데 복학경험이나 복학의도가 있는 청소년이 46.2%이었고, 학교에 가고 싶은 데 갈 수 없었던 경험을 한 청소년이 41.1%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의도와 구체적인 노력 및 의지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가출청소년은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으나 사회적으로 여건 및 기회가 박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출청소년의 학교중퇴 현상은 일반적인 학교중퇴와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가출청소년의 경우 집을 떠남과 함께 가족과 학교의 영향이 변화하고, 사회적 관계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거나 중단하는 것에 대한 행동은 가족-학교-급우의 테두리를 벗어난 체계 밖에서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가출청소년은 전체적으로 가족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고, 비행수준이 높고, 학교에서의 부적응의 정도가 큰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일반적인 학업중퇴 예측요인으로 볼 때 이미 학업중단의 위험성이 높은 집단이다. 그러므로 일반적

인 학교중퇴의 의도를 예측하는 변수로는 가출 청소년 내에서 학업을 유지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변별해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에 대한 선행연구와 가출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1)개인 요인, 2)가족 요인, 3)학교 요인, 4)가출 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 요인

청소년 개인의 경험과 관련된 요인 가운데에서는 청소년의 비행, 노동시장참여, 사회적 무력감 등이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과 관련이 있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다. 먼저 여러 연구에서 청소년의 일탈행동이 학교중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성경·이소래, 1998; 정규석·Bronson, 2000). 청소년의 가출과 일탈행동을 단순 관련시킬 수는 없지만 가출청소년의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행행동을 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는데(김지혜, 2005a), 이로 인해 학교에 더욱 부적응하게 되고 학업을 중단하게 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의 참여경험도 청소년의 학교중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노동시장이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끌어내는 경향이 있으며(McNeal, 1997), 장시간 일을 하는 학생들은 전혀 일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중퇴할 가능성이 높다(D'Amico, 1984). 이는 청소년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학업에 열중할 시간과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박창수·도종수, 2003).⁵⁾

사회적 무력감은 청소년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사회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가출청소년의 경우 가정에서의 이탈과 거리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사회적인 낙인을 인식하고 무력감을 형성하며(김지혜, 2005a), 결과적으로 학업을 중단할 수 있다.

5) 가출청소년의 경우 특히 집을 나온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5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김지혜, 2005b) 학업을 더욱 쉽게 중단하게 될 수 있다.

2) 가족 요인

가족배경, 즉 가족 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이 여유 있는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중도탈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유성경·이소래, 1998; Rumberger, 1983). 또한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재혼 등 가족구조상에 결손이 있을 때 학교중도탈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유성경·이소래, 1998). 부모의 교육 수준도 자녀의 학교중퇴와 관련 있는 주요한 변수로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중퇴율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umberger, 1983; Frank, 1990). 이와 같이 가족 배경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학업중단이 청소년의 초기발달단계에서부터 시작된 체계적 결핍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Rumberger, 1983). 가출청소년의 가족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고, 구조적 결핍이 있는 등의 특징이 발견되며(김준호·박정선, 1993), 이와 같은 가족 계층배경은 청소년의 가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학업중단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족배경은 집을 떠난 이후에는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여(Hagan & McCarthy, 1992), 가출청소년 집단 내의 학업중단에 대해서는 주요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가족의 기능적 특성도 학교중퇴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정에서의 학대와 폭력은 가족이 청소년을 양육하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의 발달상의 문제와 함께 학업중퇴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Franklin, 1992). 가출청소년의 경우 가족의 기능적 문제가 일반적인 청소년이 경험하는 것보다 심각한 경우가 많으며, 가정폭력과 학대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김준호·박정선, 1993; Yoder et al., 2001). 가출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은 가출의 주요한 원인인 동시에(Kurz & Kurz, 199) 학업중단에도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학교 요인

여러 선행연구에서 학교관련 요인은 학업중퇴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먼저 교사와 잘 지내지 못하거나, 교사가 학생을 격려해주지 않는 것 등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중퇴의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신현숙·구본용, 2002; 조아미, 2002; Marin, 1995; Diyu, 2002). 또래와의 관계도 학업중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는 청소년이 학교에 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신현숙·구본용, 2002; 조아미, 2002; Walters & Bowen, 1997; Janosz et al., 2000).

가출청소년의 경우 집을 떠나는 것과 함께 학교를 떠날 위험이 높은 상태에 있다. 이 때 교사나 급우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이 학교에 가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반면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또래관계와 괴롭힘은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⁶⁾ 청소년이 학교에서 괴롭힘과 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 학교를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를 갖게 되며 부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고, 집중력에 손상을 받는 등 발달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Kupersmidt & Coie, 1990).

4) 가출 요인

학업중단과 관련된 가출관련 요인으로 가출기간과 보호시설에서의 입소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가출기간은 청소년의 결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출청소년은 가족에게서 발견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학교에 나가지 않거나 가출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가출기간 동안 결석기간이 함께 증가하기 쉽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결석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교에서 유급이나 제적을 시키거나 자발적인 퇴학을 권장하는 경우가 있어 학업중단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김향초, 1998).

반면 청소년이 가출하였다더라도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 지역에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성인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결석의 기간을 단축하고 학업을 지속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보호시설에서 청소년이 복학을 하도록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업을 지속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나 학업중단을 예방하는데 보호시설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Hicks-Coolick 외(2003)는 쉼터의 서비스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대부분의 쉼터에서 청소년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보호시설의 경우, 청소년이 시설에서 적응하고 생활하는

6) Kupersmidt와 Coie(1990)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 대한 7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해 또래사이에서 거부당했던 청소년의 31%가 중퇴한 것으로 나타나 거부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학교중퇴율 16%에 비해 높은 것을 밝혀내었다.

것에 대해 많은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외부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가출 청소년이다. 여기서 가출 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24시간 이상 집밖에서 지낸 경험이 있으며 현재 집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되었다. 가출 청소년은 쉽게 발견되지 않으며 표본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접근 가능한 대상을 중심으로 의도적 표본추출을 시행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가출청소년쉼터 14개 기관에서 수집된 자료인 15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연구대상자와 주요변수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기술적 통계분석,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일원변량분석과 t-검정,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이 실시되었으며, 분석을 위해 SPSS 14.0을 사용하였다.

2. 변수측정

1) 학업중단

학업중단에 대한 측정은 현재 청소년이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다. 본 연구에서 학업중단은 정규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둔 것뿐만이 아니라 정규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였다. 청소년이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경우는 재학중(0점),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는 학업중단(1점)으로 측정하였다.

2) 개인 요인

학업중단을 설명하는 요인들은 크게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 가출요인 등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우선 개인요인으로 개인의 비행경험, 노동시장참여경험, 사회적 무력감 등을 측정하였다. 개인의 비행경험은 가출청소년이 주요하게 경험하는 비행인 절도, 강도, 폭력, 성매매 등으로 정의하고, 김준호·박정신(1993), Whitbeck과 Simons(1993), Baron과 Hartnagel(1998)이 사용한 척도를 참조하여 재구성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가출전후에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거나, 흥기로 위협하고 상처를 주거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고 한 가지라도 비행경험이 있는 경우에 비행경험이 있음(1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행경험이 없음(0점)으로 측정하였다.

노동시장참여경험은 청소년이 가출전후에 성매매업소를 제외한 일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여, 그렇다(1점)와 아니다(0점)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무력감은 Neal과 Seeman(1964)의 'Powerlessness', Luhtanen과 Crocker(1992)의 'CSE'(collective self-esteem scale) 등을 참조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즉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사회에서 내가 성공하려면 능력보다는 운이 좋아야 한다, 내가 사회에서 잘 살게 될지 걱정스럽다, 가끔씩 내가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낀다 등 네 가지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로 응답하도록 하여,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무력감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았다.

2) 가족과 학교 요인

가족요인으로는 가족구조, 가족의 경제적 수준, 부의 학력, 모의 학력을 측정하였다. 먼저 가족 구조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한 질문을 통해, 친부모로 구성됨, 적어도 한 명이 양부모임, 다른 성인이 보호자임 등으로 가족 상태를 파악하여, 친부모로 구성된 가족구조를 1점으로, 그 외의 가족구조는 0점으로 측정하였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주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매우 어려운 편이다(1점),

어려운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넉넉한 편이다(4점), 매우 넉넉한 편이다(5점)로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음(1점), 초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2점), 중학교 졸업 또는 중퇴(3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4점), 대학교 이상(5점) 등으로 측정하였다.

학교요인으로는 청소년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주요한 사회적 관계로서 가출한 상태에서 교사와의 관계와 급우와의 관계를 측정하였다. 청소년에게 가출하여 생활하는 동안 가깝게 지낸 사람 가운데 학교교사가 적어도 한 명 있으면 학교교사와 가까운 관계가 존재함(1점),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0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가출 후 가까이 지낸 사람들 가운데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나 선후배가 적어도 한 명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급우와 가까운 관계가 존재함(1점)과 그렇지 않음(0점)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가족과 학교에 대한 주요요인으로서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을 측정하였다. 즉 청소년이 가출 전후에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심한 욕설, 비웃음, 모욕 등을 당하거나, 심하게 두들겨 맞건, 성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한 가지라도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있음(1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없음(0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하였다.

3) 가출 요인

가출관련 요인으로는 청소년의 가출기간과 가출 후 보호시설 이용기간 등을 측정하였다. 가출기간은 청소년이 가출하여 집밖에서 지낸 총 기간을 묻는 단일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이 때 가출을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라고 정의하여 설문지에 제시하고, 청소년이 이 정의를 참조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범주는 1주일 미만(1점), 1주일~1개월 미만(2점), 1개월~6개월 미만(3점), 6개월~1년 미만(4점), 1년~3년 미만(5점), 3년 이상(6점)으로 구성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출기간이 길다고 보았다.

가출 후 보호시설 이용기간은 청소년이 조사당시 현재 입소하고 있는 보호시설에서의 입소기간과 이전에 가출 중 이용하였던 보호시설에서의 입소기간에 대해 질문하여, 가출하여 지내는 동안 보호시설을 이용한 총 기간을 1주일 미만(1점), 1주 이상~1개월 미만(2점), 1개월 이상(3점)으로 측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학업중단 현황

본 연구 대상자 151명 가운데 남자는 41명(27.2%), 여자는 110명(72.8%)이고,⁷⁾ 연령별로는 9~12세 14명(9.3%), 13~15세 83명(54.9%), 16~18세 54명(35.8%)으로 평균 연령은 15.0세(표준편차 1.83)였다. 학력별로는 초졸 미만이 12명(7.9%), 초졸 71명(47.0%), 중졸 65명(43.0%), 고졸 3명(2.0%)이었다. 가출기간은 1주일 미만인 청소년이 34명(23.1%), 1주일 이상 1개월 미만 26명(17.7%),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2명(21.8%), 6개월 이상 1년 미만 21명(14.3%), 1년 이상 3년 미만이 22명(15.0%), 3년 이상이 12명(8.2%)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 현황은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다. 전체 청소년 151명 가운데 70명(46.4%)이 현재 정규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81명(53.6%)이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가운데 중도에 학교에서 탈락한 청소년은 63명으로 전체 중 41.7%이었고, 졸업 후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은 18명(11.9%)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서의 학업중단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이전 과정을 수료하여 해당학교에 진학하거나 재학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청소년 가운데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과 중퇴나 진학을 하지 않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7) 남자가 여자보다 적은 이유는 본 연구의 자료가 가출청소년쉼터에서 수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표본의 대표성을 위해서는 남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쉼터 이외의 다양한 가출청소년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한계를 가진다.

<표 2>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 현황

구 분	총인원	재학	학업중단		
			계	중퇴	미진학
전체	151	70(46.4)	81(53.6)	63(41.7)	18(11.9)
초등학교	12	8(66.7)	4(33.3)	4(33.7)	-
중학교	71	33(46.5)	38(53.5)	36(50.7)	2(2.8)
고등학교	65	28(43.1)	37(56.9)	23(35.4)	14(21.5)
대학교	3	1(33.3)	2(66.7)	-	2(66.7)

2. 학업중단집단과 재학집단 비교

1) 개인 요인

학업중단집단과 재학집단의 차이를 주요한 개인요인에 따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9.5%인데 비해, 재학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9%로 적었다.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집단에서의 비율은 60.5%인데 비해, 재학집단에서의 비율은 87.1%로 높게 나타났다.⁸⁾ 따라서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 학업중단의 경향성이 더 높고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또한 학업중단집단의 평균연령은 15.5세(표준편차 1.57)이고 재학집단의 평균연령은 14.4세(표준편차 1.92)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났다.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학업중단집단에서는 79.2%인 것에 비해, 재학집단에서는 65.7%로 더 낮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노동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학업중단집단에서는 64.6%이고 재학집단에서는 35.7%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 가운데 노동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무력감에 대해서는 학업중단집단의 평균점수가 약간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8) 전체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표본의 성별 구성비가 남자는 41명(27.2%), 여자는 110명(72.8%)으로 여자 청소년의 절대수가 많기 때문이다.

<표 3> 개인요인에 따른 학업중단집단과 재학집단의 차이

구 분		학업중단집단 (n=81)	재학집단 (n=70)	전체 (n=151)	집단간 차이검정
성별	남	32(39.5)	49(12.9)	41(27.2)	$\chi^2=13.482^{***}$
	여	49(60.5)	61(87.1)	110(72.8)	
연령 ^a		15.5(1.57)	14.4(1.92)	15.0(1.83)	t=3.938 ^{***}
비행경험	있음 ^b	61(79.2)	46(65.7)	107(72.8)	$\chi^2=3.377$
노동경험	있음 ^b	51(64.6)	25(35.7)	76(51.0)	$\chi^2=12.355^{***}$
사회적 무력감 ^a		10.3(2.25)	9.8(2.42)	10.1(2.33)	t=1.204

***p<.001

a. 연령과 사회적 무력감에 대한 수치는 평균(표준편차)임. 그 외의 다른 변수에 대해서는 빈도(비율)임.

2) 가족과 학교 요인

가족과 학교요인에 따라 학업중단집단과 재학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먼저 가족구조에 따라 살펴보면, 가족이 친부모로 구성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학업중단집단 18.5%, 재학집단 34.3%로, 재학집단에서 친부모 가족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많았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학업중단집단의 경우 매우 어려운 편이거나 어려운 편이 55.9%이고, 재학집단의 경우 44.9%로 조금 적었지만,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부모의 학력 또한 재학집단에서 조금 더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출 상태에서 학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교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학업중단집단에서 7.4%이고, 재학집단에서는 18.6%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급우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학업중단집단에서 70.9%이고 재학집단에서 64.3%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학업중단집단에서는 85.9%, 재학집단에서는 78.6%로 두 집단 모두 높은 수준이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4> 가족과 학교요인에 따른 학업중단집단과 재학집단의 차이

구 분		학업중단집단 (n=81)	재학집단 (n=70)	전체 (n=151)	χ^2
가족구조	친부모 ^a	15(18.5)	24(34.3)	39(25.8)	4.873*
가족의 경제적 수준	매우 어려운 편	21(25.9)	11(15.9)	32(21.3)	4.485
	어려운 편	25(30.9)	20(29.0)	45(30.0)	
	보통	30(37.0)	28(40.6)	58(38.7)	
	넉넉한 편	5(6.2)	10(14.5)	15(10.0)	
	매우 넉넉한 편	-	-	-	
부학력	무학	1(1.6)	-	1(0.8)	4.164
	초등학교	13(20.3)	5(8.9)	18(15.0)	
	중학교	12(18.8)	11(19.6)	23(19.2)	
	고등학교	24(37.5)	26(46.4)	50(41.7)	
	대학교 이상	14(21.9)	14(25.0)	28(23.3)	
모학력	무학	5(9.1)	2(3.6)	7(6.4)	2.536
	초등학교	8(14.5)	5(9.1)	13(11.8)	
	중학교	7(12.7)	9(16.4)	16(14.5)	
	고등학교	24(43.6)	28(50.9)	52(47.3)	
	대학교 이상	11(20.0)	11(20.0)	22(20.0)	
교사와의관계	있음 ^b	6(7.4)	13(18.6)	19(12.6)	4.255*
급우와의관계	있음 ^b	56(70.9)	45(64.3)	101(67.8)	0.740
폭력피해경험	있음 ^b	67(85.9)	55(78.6)	122(82.4)	1.367

*p<.05.

a. 범주가 친부모와 기타 가족구조의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있음에 대한 결과치만 제시함.

b. 범주가 있음과 없음의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있음에 대한 결과치만 제시함.

3) 가출 요인

가출요인에 따라 학업중단집단과 재학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가출기간에 따라서 보면, 가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청소년의 비율은 학업중단집단에서 24.1%인데 비해, 재학집단에서는 61.3%로 더 높았다. 또 가출기간이 1년 이상인 청소년의 비율은 학업중단집단에서 32.9%인데 비해, 재학집단에서는 11.8%로 더 낮았다. 학업중단집단의 청소년의 가출기간이 더 긴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후 보호시설 이용기간에 대해서는, 이용기간이 1주일 미만인 청소년의 비율이

학업중단집단에서는 25.3%인 것에 비해, 재학집단에서는 54.5%이었다. 또 이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청소년의 비율은 학업중단집단에서 48.1%, 재학집단에서는 27.3%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집단의 보호시설 이용기간이 더 길고, 재학집단의 보호시설 이용기간이 더 짧은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표 5> 가출요인에 따른 학업중단집단과 재학집단의 차이

구 분		학업중단집단 (n=81)	재학집단 (n=70)	전체 (n=151)	χ^2
가출기간	1주미만	6(7.6)	28(41.2)	34(23.1)	31.306***
	1주-1개월미만	13(16.5)	13(19.1)	26(17.7)	
	1개월-6개월미만	17(21.5)	15(22.1)	32(21.8)	
	6개월-1년미만	17(21.5)	4(5.9)	21(14.3)	
	1년-3년미만	17(21.5)	5(7.4)	22(15.0)	
	3년이상	9(11.4)	3(4.4)	12(8.2)	
가출후 보호시설 이용기간	1일-1주미만	20(25.3)	36(54.5)	56(38.6)	13.109**
	1주-1개월미만	21(26.6)	12(18.2)	33(22.8)	
	1개월 이상	38(48.1)	18(27.3)	56(38.6)	

p<.01, *p<.001

3.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 가출요인 등 앞에서 살펴본 주요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한 모델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독립변수로 포함된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의 학력과 모의 학력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영향을 대표할 수 있는 변수로 부의 학력만 검증모델에 포함시켰다.⁹⁾ 분석 결과, 모델은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Model Chi-square=49.476, df=13, p<.001).

변수별로 살펴보면, 성별, 가출기간, 교사관계유지 등 세 개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9) 변수의 정규성을 살펴본 결과, 왜도의 절대값은 2.27이하로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은 3.24 이하로 10을 넘지 않아 정상분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05:48-50).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인요인 가운데 성별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odds)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연령, 비행경험, 노동시장참여경험, 사회적 무력감 등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가족과 학교요인 가운데에서는 가족구조, 가족의 경제적 수준, 부의 학력, 폭력피해 경험 등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요인 가운데에서는 교사와의 관계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 가출 후 교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업중단의 가능성(odds)이 2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우와의 관계는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가출요인 중에서는 가출기간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 가출기간이 길수록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높으며, 가출기간에서 측정한 범주에서 한 단위가 증가할수록 학업중단의 가능성(odds)은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시설이용기간의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 예측변수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변수	B	S.E.	Wald	Exp(B)
성별(남자)	1.984**	.737	7.252	7.273
연령	.175	.174	1.009	1.191
비행경험	-.372	.731	.259	.689
노동시장참여경험	-.216	.639	.114	.806
사회적무력감	.158	.124	1.621	1.171
가족구조(친부모)	-.242	.646	.141	.785
가족의경제적수준	-.170	.361	.223	.844
부학력	-.429	.295	2.123	.651
교사와의관계(있음)	-3.042**	1.008	9.105	.048
급우와의관계(있음)	.957	.644	2.206	2.604
폭력피해경험	-.529	.814	.421	.589
가출기간	.683**	.237	8.330	1.980
보호시설이용기간	.656	.408	2.591	1.927

Model Chi-square=49.476 (df=13), p<.001

-2 Log likelihood=91.886

*p<.05, **p<.01.

이와 같은 결과는 학업중단집단과 재학집단을 비교했을 때, 연령, 노동경험, 가족구조, 가출 후 보호시설이용기간 등에서도 집단간차이가 나타났던 것과 차이가 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에 비해 연령이 높고, 노동경험이 더 많고, 친부모 가족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보호시설 이용기간이 더 긴 경향이 있는 등 집단의 특징을 보이지만,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했을 때에 이러한 요인들은 학업중단을 예측하는 변수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V. 맺음말: 종합 및 대책 논의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가출청소년 집단 내에서 학업중단집단과 재학집단을 특징적으로 구분하는 변수에 대한 분석과 학업중단을 설명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출청소년 집단 내에서 학업중단집단과 재학집단을 구분하는 변수는 성별과 연령, 노동시장 참여경험, 가족구조, 교사와의 관계, 가출기간, 보호시설 이용기간 등으로 나타났다. 즉 가출청소년 가운데 학업중단집단은 재학 중인 청소년에 비해 남자가 많고, 연령이 높고, 노동시장 참여 경험이 많았다. 또한 가족구조상 친부모가 아니고, 교사와 가까운 관계를 갖지 못하고, 가출기간과 보호시설 이용기간이 긴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청소년의 비행경험, 가족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학력, 급우와의 관계, 폭력피해경험, 사회적 무력감 등은 학업중단집단과 재학집단을 구분하는데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학업중단 예측변수를 관찰한 결과 청소년의 성별, 교사와의 관계, 가출기간만이 학업중단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남자이거나 가출기간이 길수록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많고, 가출한 상태에서도 교사와 가까운 관계가 있는 경우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점은 가족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학력 등 학업중단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널리 알려진 가족관련 변수가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을 결정짓는 변수로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것은 일반청소년에서 이

러한 변수들이 학업중단집단의 차이를 특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유성경·이소래, 1998)과는 상이하다. 한편 청소년비행 연구(Hagan and McCarthy, 1992)에서 일반청소년의 경우 가족의 사회적 계층이 낮은 것이 비행을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지만, 가출청소년의 경우 가족의 계층이 주요한 요인으로 발견되지 않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가족과 관련된 변인은 청소년의 가출이나 비행 등에 선 반영되어 이미 집을 떠난 청소년의 행동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 있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유성경·이소래, 1998)에서 청소년의 가출은 학업중단과 관련된 주요요인으로 밝혀졌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보다는 가출기간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학업중단은 가출이라는 사건 자체의 효과보다는 가출기간의 증가에 따른 효과로 이해되어야 함으로 보여준다. 즉 비행행동인 가출 때문이라기보다는 가출의 기간 자체가 학업을 중단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¹⁰⁾ 따라서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출 이후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가출 후 교사와의 가까운 관계가 학업중단의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가출 이후에 교사와의 관계가 학업중단을 감소시키는 데 주요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폭력피해경험이나 급우와의 가까운 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교사와의 관계는 학교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특히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가출을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 간주하고 징계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교사와 관계가 부정적으로 형성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반면, 가출을 하더라도 교사와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때에는 학업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남자청소년의 학업중단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가출기간과 교사와의 관계가 같은 조건인 경우에 남자청소년에 대해서 더욱 주의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10) 집단비교분석에서 연령, 노동시장참여경험, 보호시설이용기간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학업 중단에 대한 예측요인으로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은, 두 집단에서 이들 변수의 차이가 가출 기간에 따른 효과로 설명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학업중단집단에서 연령이 높고, 노동시장참여경험이 많고, 보호시설이용기간이 길었던 것은, 학업중단에 대한 가출기간의 효과와 등반하여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시사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표본에서 남자청소년이 적었던 한계가 있어서 일반화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므로 좀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한 추후연구를 통해 다시 고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은 구조적인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점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겠다. 앞서 II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빈곤계층 내지는 하위계층, 즉 부모의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낮고 가족구조의 결핍이 있는 배경 하에서 청소년가출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이 학업마저 중단하여 교육권이 박탈되면(앞서 이론적 배경의 가족요인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배경의 청소년이 여유 있는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학업중단율이 높다.)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획득, 즉 지위의 상승이동 통로마저 막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의 대물림, 낮은 교육수준의 대물림 등의 순환고리에 따라 하위계층의 구조화가 발생하게 된다.¹¹⁾ 따라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볼 때, 청소년이 가출을 하였다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출기간의 장기화를 막고, 가출 후에도 교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집을 떠난 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¹²⁾

우선 청소년과 교사와의 관계를 유지시키려는 학교 역할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교육계의 주요 사업으로 포괄하는 경우가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과학부가 2002년도부터 학교이수프로그램(School Completion Programme)을 마련하여 교육기관, 부모, 지역사회 등의 협력관계를 주도적으로 형성하고 있다(McLoughlin, 2005).¹³⁾

11) 또한 학대와 폭력 등 가족의 기능적 특성도 학업중단 및 가출 각각에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계층의 문제에 더하여 인간적인 삶 자체에도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12)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출청소년은 청소년쉼터를 비롯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 속에서 다루어졌다. 교육체계 속에서는 학업을 이탈한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학업을 아직 중단하지는 않았으나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가출청소년 집단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교육체계, 특히 학교는 가출을 초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으로서, 가출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의 비행과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이기도 하다.

13) 미국의 경우 맥키니-벤토 노숙인교육지원진흥법 (McKinney-Vento Homeless Education Assistance Improvements Act)을 마련하여 가출한 청소년이라도 거주지 상태와 보호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교육을 지속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학교 등록 절차에 따른 시간지체를 최소화하고, 학업에 필요한 물품, 급식, 교통수단 등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지역별로 배치하여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사회복지 차원에서 학교 내에 전문상담가가 상주하도록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 내의 전문가의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가출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사정하고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 내에 가출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마련하여, 청소년이 정규교육에서 잠시 이탈하였더라도 쉽게 복교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며, 이후 교재비, 급식비, 학습지도 등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사회복지 차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를 포함한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학업을 중단한 집단이 보호시설 입소기간 역시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호시설에서 청소년의 학업유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은 Hicks-Coolick 등(2003)이 많은 쉼터의 경우 청소년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여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던 것과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쉼터에서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대안학교로 연계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정규학교에 복학하도록 하여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이것은 실무자의 인식부족이나 개별적인 역량의 부족일수도 있으나, 행정절차가 까다롭거나 학교장이 거부할 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한계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역시 교육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끝으로 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따른다. 비확률 표집에 따른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와 횡단적·회고적 연구에 따른 인과관계 논리의 한계를 들 수 있겠다. 가출청소년은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표본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에 대한 태도, 학교환경 등 더욱 자세한 조사를 통해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환경 개선요소와 개입방법을 더욱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행정 절차에 도움을 준다(National Law Center on Homelessness and Poverty, 2004).

참 고 문 헌

- 김경준·정익중·김지혜·류명화(발간예정).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준호·박정선(1993).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혜(2005a). 가출 청소년의 비행화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혜(2005b).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16(2), pp. 207-234.
- 김향초(1998). 가출청소년의 이해. 서울: 학지사.
- 박창남·도중수(2003). 청소년 학교중퇴의도의 원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pp. 207-238.
- 서울시립신림청소년쉼터(2003). 5주년 기념 WORKSHOP: 스스로 돌봐야하는 청소년들.
- 신현숙·구본용(2002). 중퇴생, 중퇴 고위험 및 저위험 재학생의 비교: 개인 및 사회·환경 변인들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6(3), pp. 121-145.
- 안치민(2003). 복지권의 구성과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55, pp. 5-25.
- 연성진·민수홍(2004). 가출청소년의 비행예방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원혜옥(2001). 가출로 인한 청소년범죄의 유형 및 대처방안. 형사정책, 13(2), pp. 217-241.
- 유성경·이소래(1998).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연구. 청소년대화의광장.
- 정규석·Bronson, D. E.(2000). 미국 고등학교의 학교중퇴에 관한 다체계 모델: 모델 검증과 학교중퇴 예방프로그램에 주는 의미. 한국이동복지학, 9호, pp. 205-225.
- 조아미(2002). 청소년의 학교중퇴 의도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 9(2), pp. 1-22.
- 통계청(2006). 청소년통계. 통계청.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5). 가출청소년쉼터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Baron, S. W. & Hartnagel, T. F.(1998). Street youth and criminal viol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2), pp. 166-192.
- Bourdieu, P. The Forms of Capital, in John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pp. 241-258.
- D'Amico, R.(1984). Does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impair academic progress? *Sociology of Education*, 57(July), pp. 152-164.

- Diyu, X.(2002). Investigation and discussion on the problem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dropouts in poor areas. *Chinese Education and Society*, 33(5), pp. 49-58.
- Frank(1990). High School Dropout: A New Look at Family Variables. *Social Work in Education*, 13(1), pp. 34-48.
- Franklin(1992). Family and individual patterns in a group of middle-clas dropout youths. *Social Work*, 37(4), pp. 338-344.
- Hagan, J. & McCarthy, B.(1992). Streetlife and delinquenc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3(4), pp. 533-561.
- Hicks-Coolick, A., Brunside-Eaton, P., and Peters, A.(2003). Homeless children: Needs and Services. *Child and Youth Care Forum*, 32(4), pp. 197-210.
- Janosz, M., Blanc, M. L., Boulerice B., and Tremblay, R. E.(2000). Predicting different types of school dropouts: a typological approach with two longitudinal sampl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1), pp. 171-190.
- Kline, R. B.(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Y: The Guilford Press.
- Kupersmidt, J. B. & Coie, J. D.(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pp. 1350-1362.
- Kurtz, P. D. & Kurtz, G. L.(1991). Problems of maltreated runaway youth. *Adolescence*, 26(103), pp. 543-555.
- Luhtanen, R. & Crocker, J.(1992). A collective self-esteem scale: Self-evaluation with one's social ident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302-318.
- Marin, P.(1995). Using open-ended interviews to determine why puerto rican students drop out of school.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3(3), pp. 158-169.
- McLoughlin, S.(2005). Policies and practices concerning children and youth at

- risk-Ireland.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국제적 동향 및 정책과제. pp. 107-133. 청소년위원회
- McNeal, R. B.(1997). Are students being pulled out of high school? The effect of adolescent employment on dropping out. *Sociology of Education*, 70(July), pp. 206-220.
- National Law Center on Homelessness and Poverty(2004). *Education of children and youth in homeless situations: the 2004 guide to their rights*. Washington, DC: NLCHP.
- Neal, A. & Seeman, M.(1954). Organizations and powerlessness: A test of the mediation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9, pp. 216-225.
- OECD(2006). *Factbook 2006-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http://www.oecd.org/statistics/social>.
- Rafferty, Y. Shinn, M. and Weitzman, B. C.(2004). Academic achievement among formerly homeless adolescents and their continuously housed peer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2, pp. 179-199.
- Rogers, K. T. & Segal, E.(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factors and running away among adolescents. *Social Work n Education*, 16(1), pp. 46-54.
- Rumberger, W. R. (1983). Dropping out of high school: The influence of race, sex, and family background,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0(2), pp. 199-220.
- Walters, K. & Bowen, G. L.(1997). Peer group acceptance and academic performance among adolescents participating in a dropout prevention program.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4(6), pp. 413-426.
- Whitbeck, L. B. & Simons, R. L.(1993). A comparison of adaptive strategies and patterns of victimization among homeless adolescents and adults. *Violence and Victims*, 8, 135-152.
- Yoder, K. A., Whitbeck, L. B., & Hoyt, D. R.(2001). Event history analysis of antecedents to running away from home and being on the stree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1), pp. 51-65.

ABSTRACT

Runaway Youth's School Dropout : Determinants and Policy Implications

Kim, Ji-Hye* · Ahn, Chi-Min*

This study is to examine main factors that affect school dropout among runaway youth and to discuss policy implications to prevent their school dropout. Among this study participants from runaway shelters 53.6% were reported as dropout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s were performed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school dropout.

The results showed that runaways who were male and stayed longer on the streets were more likely to drop out of school. On the contrary, runaways who had close relationships with teachers were much less likely to drop out. The results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o reduce the dropout rates of runaway youth. First, interventions of school welfare are needed to get runaway youth out of streets as early as possible. Second, teachers should be trained to give special attention to the students who have run away or are at risk of running away.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to education for runaway youth, schools as well as shelters should make efforts to reach out for them and should support their school re-entry and adjustment.

Key Words : runaway youth, school dropout, rights to education, school social work

투고일 : 10월 29일, 심사일 : 12월 8일, 심사완료일 : 12월 18일

* Daejin University